

'반성'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한참 전의 일이라 다소 새삼스런 느낌도 없지 않지만, 언젠가(제49호) 이 난을 통해 이론과실천 대표 김태경씨가 일간지 등의 출판기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가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많았던 유감들 가운데 하나로 이런 것이 있었다. 즉, 중복번역된 책 가운데 임의로 한 출판사의 책만을 선정하여 소개하면서, 왜 하필 그 출판사의 책이 선정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다는 것.

이제 와서 뒤늦게 김태경씨의 이같은 지적을 상기하는 것은 그의 유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다. 다만, 일간지와는 다소 경우가 틀리지만, 출판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한가지 변명을 붙일 수는 있다. 잡지의 간행주기 때문에 중복출판된 책의

면밀한 판본검토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며, 따라서 선택은 편의에 의해 좌우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물론, 엄정한 의미에서, 편의를 기준으로 한 선택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것과, 그것이 전적으로 출판담당기자의 게으름과 무지 때문만도 아니라는 사정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다.

그런데, 중복출판에 관해서라면 훨씬 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중복출판된 책 가운데 어느 한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이다.

칼릴 지브란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개인적으로 칼릴 지브란의 여전한 인기를 그다지 윤택하게 여기지 않아선지는 몰라도, 중복출판된 칼릴 지브

란의 책을 두세 출판사에서 '신간안내용'으로 한꺼번에 보내올 때면 무척 난감해진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보내온 책은 어떤 형태의 기사로든 소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어느 한 책을 선택하기란 사실 어렵다. 그렇다고 보내온 책 모두를 한 지면에 소개하기란 더욱 어렵다. 무슨 '칼릴 지브란 특집'도 아닌 담에야, 고만고만한 내용들을 역시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편역해서 낸 책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어느 한 책을 선택한다든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든가 하는 문제는 출판담당기자의 역량이나 성의와는 무관해져버린다. 출판담당기자의 일의 편의 때문에 선택과 선택에서의 배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든 것 같은 김태경씨의 유감은 중복출판된 책을 소개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런 책을 다루어 내는 출판인에게로 돌려져야 한다. 중복출판에 관한 한 반성은 출판인의 몫이 아닐까.

—이권우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 60호/1990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奎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부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旻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제) 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 康賢斗 康淑彬 權德周 權寧瑛
- 權五聖 金炳熒 金聖坤 金容雲
-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 潘星完 邊衡尹 徐洗善 徐淵吳
- 成完慶 宋相庸 愼鍾夏 安秉永
- 安輝濬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瑋薰
-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 李勝羽 李元龍 李重漢 李姬載
-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임금된 날까지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5월 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2호(5월 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현대소설의 '공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출제했습니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소설의 작중무대가 되는 집적적인 지역공간 뿐 아니라 작가의 중요한 창작동기가 되었을 작가적 상상공간도 아울러 의미합니다.

문제 1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윤홍길의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등은 그 구체적인 지명이나 상상 및 실제지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작품공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들 세 작품의 공통된 작품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대도시
- ② 위성도시
- ③ 농촌
- ④ 어촌

문제 2

한국현대소설 가운데는 우리 지도에 없는 땅을 작품공간으로 삼은 것도 적지 않습니다. 윤후명의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이 사라진 서역제국의 이미지를 그 상상적 작품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하면, 손창섭의 「낙서족」은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동인의 「붉은 산」과 김동리의 「等身佛」이 공유하고 있는, 현재 우리 지도에는 없는 작품공간은 어디입니까?

- ① 만주
- ② 연변
- ③ 대마도
- ④ 시베리아

문제 3

서울은 한국현대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뿌리 뽑힌 삶'의 현장입니다. 다음에 든 작품들 가운데 서울을 그 주된 작품공간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이상의 「날개」
- ② 현진건의 「병어리 삼룡이」
- ③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 ④ 박완서의 「도시의 흉년」
- ⑤ 김용성의 「도둑일기」

제 58 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58 호(3월 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7통, 이중 정답자는 39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문제 1

- ① 김동인—베따라기—평양
- ② 염상섭—삼대—서울
- ③ 채만식—탁류—군산
- ④ 이효석—메밀꽃필무렵—봉평
- ⑤ 김동리—밀다원시대—부산
- ⑥ 김원일—노을—진영

- ⑦ 이문구—관촌수필—대전
- ⑧ 양귀자—원미동사람들—부천
- ⑨ 윤홍길—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성남
- ⑩ 현기영—변방에 우짖는 새—제주

문제 2

- ② 버스

문제 3

- ④ 군대

문제 4

- ① 최상규의 「나방과 거품」(이 작품은 아프리카의 자이레를 작품의 무대로 삼고 있다.)

당첨자

박희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78-21)

임소영(서울시 도봉구 수유2동 253-49)

최영태(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338-18)

문지양(부산시 진구 전포1동 346-82)

이석희(경북 경주군 안강읍 안강2리 307)